기아차 오피러스 고객 사랑

1200명 뮤지컬 등 문화 행사 초대

기아자동차는 뉴오피러스 3개월 연속 대형차 판매 1위를 기념해 총 1천200명의 오피러스 보유고객을 각종 공연에 초대하는 문화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첫 순서로 이날 대전지역의 오피러스 보유고객 가운데 150커플(총 300명)을 선정,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일본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내한공연에 초대했다.

또한 오는 23일 오피러스 보유고객 300커플(총 600명)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에 초청하고, 오는 11월11일 대구지역의 오피러스 보유고객 150커플(300명)을 선정해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에 초대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무협, 수출中企에 340억 융자 지원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하반기 무역기금 3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에따라 무역협회는 18~27일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 지부에서 희망업체를 접수한다.

무역협회가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이행을 위해 지원하는 무역기금은 연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 4% 금리에, 1년 거치후 연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수출실적 또는 사업유망성에 따라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하반기 부터는 담보제공용 보증서 발급기관이 수출보험공사 외에 기술보증기금이 포함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최고 85%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참조는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 : //fund.kita.net).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商議, 세무회계 전문가 과정 개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 3회(월·수·금요일) 매일 5시간씩 '세무회계 전문가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세무회계 전반에 대한 경리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사전지식 습득과 합리적인 실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세무사회 강명수 세무사, 이정봉 공인노무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대보험, 국세기본법 및 징수법 등의 관해 강의한다.

희망자는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지원부(350-5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減稅 등 획기적 인센티브로 국제물류센터 유치해야

'U-물류 광양시티 국제포럼' 순천대 조병록 교수 발표

광양만권이 미래형 첨단도시인 'U-물류(유비쿼터스 물류) 광양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국제물류센터(IDC) 유치 등 각종 물동량 확충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대학교 조병록 교수는 지난 15일 광양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제1회 U-물류 광양시티(ULGC) 국제포럼 및 전시회'를 통해 광양항을 고부가가치의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현황 분석 및 세부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유비쿼터스 물류 중심의 광양항 구축 방향'이란 제목의 정책 발표에서 ▲해외기업의 국제물류센터 유치 ▲통합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 도입 ▲U-광양의 인프라 기반 확대 ▲RFID(무선전자태그) 관련 산업 육성 및 확대 등을 전략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물류센터의 경우 투자기업의 임대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하는 한편 500만달러(물류업)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10년간 완전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과 일반 입주기업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과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항의 물동량 확충을 위해 국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물 유치·창출 전략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동북아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양항을 비롯한 국내 물동량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국제물류시장의 환경과 배후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기능을 특화하는 한편 화물창출형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컨테이너화물 창출을 위한 물류기업 유치, 기반조성에 필요한 물류지원시설 확충, 요율체계 개선, 일반부두 확충 등을 주요 개선항목으로 꼽았다.

한편 광양시가 주최하고 순천대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무선전자태그 산업 및 U-city 관련 국내외 사례발표와 함께 'U-물류 광양시티'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주·전남 혁신형 中企 180개사

중기청 맞춤형지도 효과… 작년말보다 46% 늘어

광주·전남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180개사로, 작년 말 123개에서 57개(46%)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은 2001년부터 기술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개별기술이 뛰어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술혁신형기업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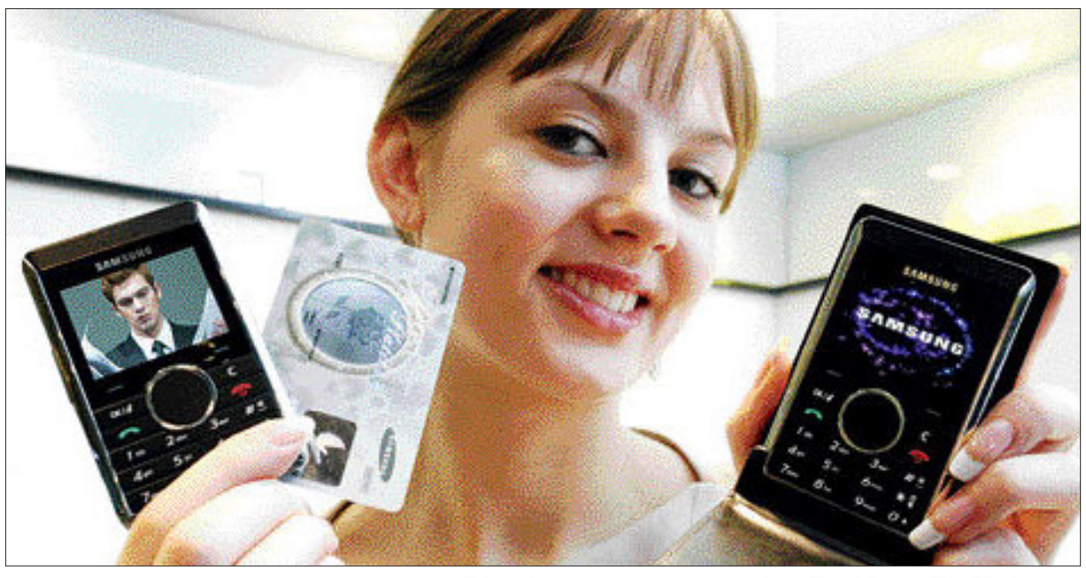
올해 지정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73.7%(42개)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분야가 각각 7%(4개)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환경업체 3개, 건설업 2개, 디자인업체 1개, 비제조업 1개 등이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35개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며 "이런 증가추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추진해온 300여 업체에 대한 1 : 1 맞춤형 현장방문 지도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육성을 위해 앞으로 유망기업 390개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추진하고, 이노비즈 인증을 컨설팅해주는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지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지도'는 업력 3년 이상이고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수가 500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업의 이노비즈 시스템 구축을 도와준다.

/이종태기자 jtlee@



유럽시장 노리는 삼성전자 '카드폰 II' 삼성전자가 9월말부터 유럽시장에서 선보일 두께 8.5mm, 무게 75g의 '카드폰 II(모델명 SGH-P310)'. 지난 2월 선보인 '카드폰 I'의 두께 8.9mm와 무게 82g보다 얇고 가벼우며 200만화소 카메라, 블루투스, 외장메모리, 이동식디스크 등 다양한 첨단기능을 갖췄다. /연합뉴스

2단계 kr도메인 등록비 2,200원 인하

정보통신부는 18일부터 등록을 개시하는 2단계 영문 Kr도메인(예 : kwangju.kr)에 대한 등록관리 수수료를 1만5천400원에서 1만3천200원으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는 2단계 영문 Kr도메인 제도 시행에 따라 도메인 수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Kr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란 도메인 신청인이 등록대행자에 낸 등록수수료(1만5천400원+α)중 등록대행자가 국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Kr도메인 등록 수수료는 26개 등록대행자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므로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건당 3만3천원이 부과됐으며 도메인 수 증가에 따라 2001년3월 2만2천원, 2002년 8월 1만5천400원으로 인하됐다.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앞으로 2단계 도메인 등록 활성화에 따라 도메인 등록 수가 증가하면 원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월19일부터는 모든 Kr도메인 등록 비용을 인하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3,000명 고용창출·지역 친화기업 성장

고객만족 '1등 백화점' 자리매김

롯데 광주점 개점 8주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박호성·사진)이 18일로 개점 8주년을 맞았다.

지난 98년 광주에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광주신세계, 현대백화점 광주점과 함께 백화점 '빅3'체제를 구축하고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일대 변혁을 주도해왔다.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들의 길거리 상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지만 3천여명이 넘는 고용창출과 지방세 세수효과 등에서 지역친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풍부한 상품구색과 다양한 문화행사, 사회봉사 활동 등을 바탕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광주 유통업계에서 '패션화·전문화·고급화'로 승부를 걸어 저가전략으로 나오는 대형 마트 등과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광주지역 최초로 백화점에 복합 멀티영화관인 롯데시네마를 개관함으로써 쇼핑공간을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고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민의 문화욕구 총족에도 기여했다.

2001년에는 민주의 종 제작 기부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는 등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올해 4월 에트로 입점을 시작으로 버버리, 구찌, 불가리 등 세계적 명품브랜드를 들여와 전문화된 백화점만의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장개편을 통해 젊음과 고급화를 지향하는 패션전문 백화점으로 단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점장은 "지난 8년간 지역민의 사랑속에 성장해 왔다"며 "상품 및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친화사업을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